국내 수소 산업

정책 방향 그린수소로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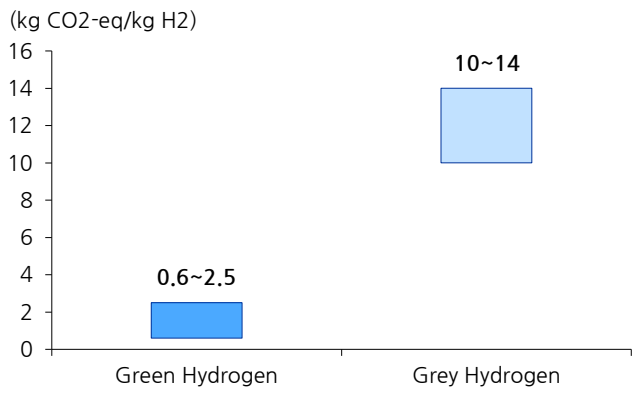
수소 산업

국내 수소 산업은 수소연료전지, 차 등의 최종 수요 대상의 보급 확대에서 그린수소 확보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 기반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

ESG/그린산업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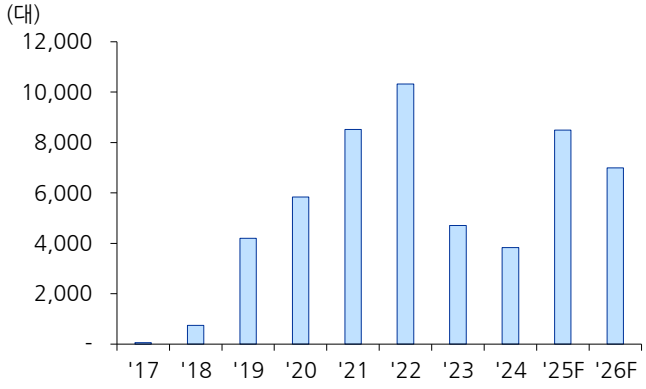
- 국내 수소산업 정책은 과거에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 최종 수요 대상의 보급 확대를 가장 중시 했으나
- 대부분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급 확대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수소산업 활성화가 탄소 감축으로 직결되도록 그린수소 중심으로 정책 전환 가능성 높아
- 그린수소 활성화 위해서는 높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생산 보조금과 재생에너지의 용이한 확보가 필요할 것
- 정부 2026년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 기존 1.1만대에서 6천대로 축소 확정
- 수소 연료전지 보급과 발전 사업도 그레이 수소 기반에서 그린수소 기반으로 지원 전환할 것으로 예상
- 그린 수소 기반 마련될 때 까지는 과도기 불가피하나 지속 성장 가능한 수소산업 활성화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 국내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미국 수소주들과 연동된 상태. 다만 미국은 트럼프정부가 천연가스 개질(그레이) 수소의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이어서 국내와 결이 달라. 국내 관련주들 중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된 수전해 밸류체인 업체들과 미국 시장 진입으로 국내 과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긍정적이나, 국내 그린수소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점은 인지되어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탄소배출량



자료: IEA, 유진투자증권

국내 수소차 판매량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정책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

국내 수소 정책은 최종 수요의 보급확대가 중심이었다. 이는 건물,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차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사용되는 수소가 일부 부생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그레이 수소여서 보급이 증가할수록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커졌다. 현재 추세로는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산업도 그레이에서 그린수소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과도기 불가피하지만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 택해야

최근 정부는 2026 년 수소차 보조금 지급대수를 기존의 1.1 만대에서 6 천대로 축소했다. 수소연료전지 보급과 발전사업도 점진적으로 그린수소 기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린수소 기반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이 그레이 대비 3~7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생산 보조금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쉽게 조달하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이 그린수소 기반으로 전환되면 과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가 탄소중립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산업, 대중량 운송 수단 등의 탄소감축에 해결 수단이기 때문이다.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는 수소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국내 수소 관련주 투자 방향

최근 국내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는 미국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연동되고 있다. Bloom Energy 를 비롯한 수소연료전지 업체들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원으로 선택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수소연료전지는 천연가스 기반 그레이 수소 사용 권장 정책에 따라 당분간 성장할 예정이어서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수소관련주들의 투자 시에는 1) 그린수소 기반으로 전환이 용이한 업체 2) 국내 과도기에도 해외 진출로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이 도입된다면 수전해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6.30 기준)